

제VII부

複主体

제VII부에서는 일본어의 큰 특징의 하나인 복주어(複主語)의 문제를 구조전달문법의 입장에서 다룬다. 「AはBが～」라는 구문에서, A, B가 함께 주격에 있는 경우의 심층구조 형식과 그 묘사법에 대하여, 구조형식별로 생각해 본다.

제19장에서는, 어떤 주체가 「구조단위를 속성으로 하는 구조」를 다룬다.

속성이 형용속성(形容属性), 단정속성(斷定属性), 동속성(動属性)인 세 가지 경우의 구조형식을 설명하고, 제1~제8의 특징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20장에서는, 「복주체가 동일속성에 서는 구조」를 다룬다. 역시 세 종류의 구조형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언급하고, 설명한다.

제21장에서는, 「태(態)를 포함하는 구조」, 「상치구조(上置構造)를 동반하는 구조」를 다룬다.

복주어를 어떻게 구조표시하고,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설명한다.

제19장

구조단위를 속성으로 하는 구조

19.1 複主体

일본어에는 주어(주체)가 두 개 있는 문장이 있다. 예를 들면,

象が鼻が長い。(코끼리가 코가 길다.) (象 \emptyset_1 は鼻が長い。)

라는 문장에서는, 「象」과 「鼻」라는 두 개 명사가 주어의 형식 「～が」를 취하고, 「長い」라는 술어에 대해 두 개의 주어가 되고 있다.

주어가 둘, 또는 그것보다 많은 문장의 심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 묘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구조형식별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이런 문장은 보통 「象が鼻が長い。」가 아니라 「象は鼻が長い。」라는 식으로 「～は～が～。」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심층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は～が～。」라는 형태도 ()에 넣어 병기(併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 \emptyset_1 」 …재로일…이라는 기호가 본래의 주격을 나타내는 격사인 것에 대해서는 2.2를 참조.

「～は」와 「～が」의 차이에 대해, 또, 「は」가 「실체태두리묘사」 기능을 가지는 「상대화묘사」인 것에 대해서는 제3장에 서술했다. 다만, 제VII부에서는 「は」의 태두리 기능을 구조도 상에 나타내는 것은 생략한다. (3.1③, 図3-9).

19.2 어떤 주체가 구조단위를 속성으로 하는 구조……세 종류의 구조

1) 형용속성(형용사)인 경우의 구조

[文1] 象が鼻が長い。 (象 \emptyset_1 は鼻が長い。)

이 문장의 심층구조는, 「象」라는 주체가 「鼻が長い」라는 속성을 가지는 형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長い」는 「형용속성(형용사)」이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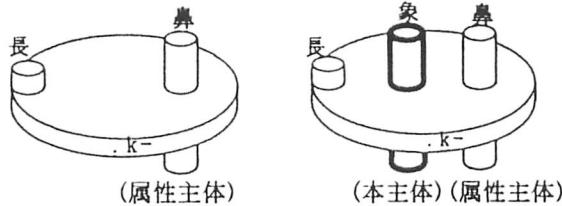


図19-1 鼻が長い(構造単位) 図19-2 象 \emptyset_1 は鼻が長い

이 속성 「鼻が長い」 (图19-1)에서는, 주술의 관계가 성립되고, 구조단위⁴⁷⁾를 형성하고

46) 형용속성의 구조표시법에 대해서는, 제8장 형용사 참조。「k-」는 「형용사(形容辭)」이고, 「形用実사(形用實辭)」와 융합하여 「형용사(形容詞)」를 형성한다.

47) 「구조단위」…… 하나의 속성과, 그것과 관련된 하나의 주체로부터 이루어지는 단위적 구조.

9.1참조.

있다. 그래서, 「文1」의 심층구조는, 어떤 주체(象)가, 구조단위 전체(鼻が長い)를 속성으로서 보존하는 형식이 된다(图19-2).

결과로서 하나의 속성(長い)에 두 개의 주체(象・鼻)가 선 구조로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두 개의 주체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19.3 참조). 그래서, 图19-1과 같이 전체에서 속성이 되는 구조단위 속에 있는 주체(鼻)를 「속성을 구성하는 주체」, 「속성주체」라고 부르고, 한편 그 구조단위 전체를 속성으로 하고 보존하는 「주체」(象)를 「본주체(本主体)」라 부르기로 해서(图19-2), 이 양자를 명칭상으로 구별한다.

따라서, 격으로서의 주격도 세분하고, 「본주격」과 「속성주격」을 설정한다. (이 각각에 θ_1 격, が격이 가능하다. 2.2 참조.)

구조도에서, 본주체는 굵은 선의 원주로 나타낸다(图19-2). 간략도에서는 속성이 되는 구조단위를 가는 선으로 표시하고, 본주체를 굵은 선으로 표시한다(图19-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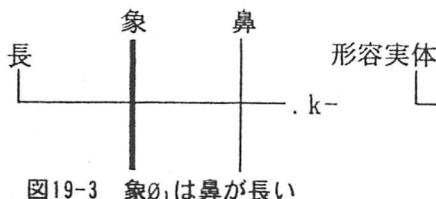


图19-3 象の人は鼻が長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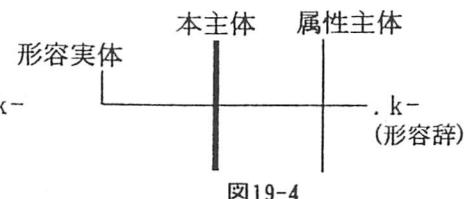


图19-4

이렇게 함으로써, [文1]의 구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형용속성『長い』는, 속성주체로서 『鼻』를 보존하고, 본주체로서 『象』를 보존하고 있다.」

또, 감각형용속성은 다른 취급을 받는다(제20장 참조).

2) 断定속성(断定基)인 경우의 구조

[文2] 彼が父親が公務員だ。(그가 부친이 공무원이다.) (彼の人は父親が公務員だ。)

이 문장의 심층구조는 「彼」라는 주체가 「父親が公務員である」(图19-5)라는 단위구조를 속성으로 가지는 형식이다(图19-6).

「公務員である」부분은 「公務員」이라는 실체와 「である」라는 단정기(断定基)에서 성립되고 있다. 「である」와 「だ」는 동일구조를 가지는 단정기(断定基)이고, 묘사법이 다른 것 뿐이다(11.1①②).

이 구조에서는, 「(公務員で)ある」라는 하나의 속성에 「彼」와 「父親」의 두 개의 주체가 서게 된다. 본주체가 「彼」이고, 속성주체가 「父親」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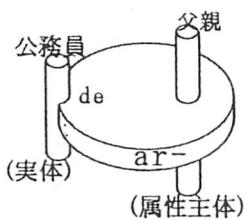


图19-5 父親が公務員だ(構造単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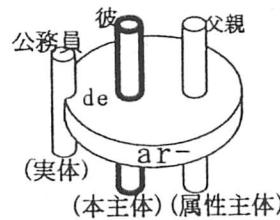


图19-6 彼の人は父親が公務員だ

이른바 형용동사의 문장, 예를 들어 「彼の人は父親が健康だ」는 같은 구조로 파악할 수 있지만, 격(格)이동이 있는 지점이 다르다⁴⁸⁾(20.3 참조).

48) 이른바 「형용동사」의 국어문법에서의 「활용」구조형식도 언급해 두자. 형용동사로 되어 있는

또, 의미를 보존하면서, de격에 있는 실체와 속성주체를 바꿔 놓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文3] 彼 \emptyset_1 は読書が趣味だ。 (그는 독서가 취미다.)

라고 묘사할 수 있는 구조(图19-7)는, de격 실체 「취미」와 속성주체 「독서」를 바꿔 넣어,

[文4] 彼 \emptyset_1 は趣味が読書だ。 (그는 취미가 독서다.)

라고 묘사할 수 있는 구조(图19-8)로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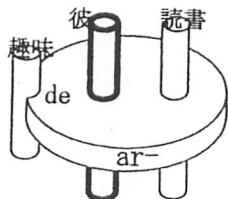


图19-7 彼 \emptyset_1 は読書が趣味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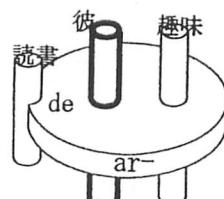


图19-8 彼 \emptyset_1 は趣味が読書だ

물론, 19.3 [특징1]의 조건……속성주체는 본주체와 명료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또, 감각단정속성(感覚断定属性)은 다른 취급을 받는다(제20장).

3) 动속성(동사)인 경우의 구조

[文5] 田中さんが長男が結婚する。(다나카씨가 장남이 결혼한다)

(田中さん∅₁は長男が結婚する。)

이 문장의 심층구조는, 「田中(さん)⁴⁹⁾」이라는 주체가 「長男が結婚する」 (图19-9)라는 구조단위를 속성으로서 보존하는 형식이 된다(图19-10). 여기에서는, 「(결혼)する」라는 动속성 상에 「田中(さん)」이라는 본주체와, 「長男」이라는 속성주체의 2주체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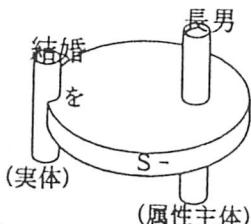


图19-9 長男が結婚する
(構造単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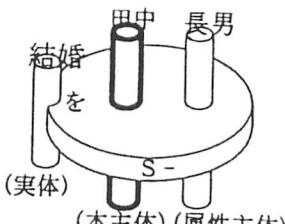


图19-10 田中さん∅₁は長男が結婚する

것은 밑줄 부분이다.

미연형 静か-d=ar-oo (이 책의 문법에서는 -oo 는 하나의 묘사사(描写詞)이다.)

연용형① 静か-d=ar-i=t-∅=a- (축음편(促音便)이 된다.)

연용형② 静か-de(ar-i) (=ar-i 의 부분은 항상 생략된다.)

연용형③ 静か-ni (「に격」으로 격 이동. 속성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

중지형 静か-d=a(r-u) (r-u 의 부분은 항상 생략된다.)

연체형 静か-n=a(r-u) (r-u 의 부분은 항상 생략된다.)

가정형 静か-n=ar-a(ba) (-aba 의 ba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d」는 격사 「de」의, 「n」은 격사 「ni」의 모음탈락형이다.

국문법과 같은 표층 레벨의 문법에서는, 이런 「활용표」로 정리한다.

심층구조에서 보면, 「で격」과 「に격」에서 상보분포(相補分布)로 되어 있다.

49) 「田中さん」의 「さん」은 「(대우(待遇))描写詞」이고, 구조와는 관계가 없다. 제5장 부분묘사사

표5-6 참조.

마찬가지로, 「気がつく」와 같은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의 구조에도 복(複)주체가 있다.

[文6] 五郎が後ろにいる男に気がつく。(고로가 뒤에 있는 남자의 기색을 느끼다.)

(五郎₀₁は後ろにいる男₀₂に気がつ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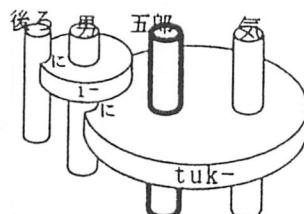


图19-11 五郎₀₁は後ろにいる男₀₂に気がつ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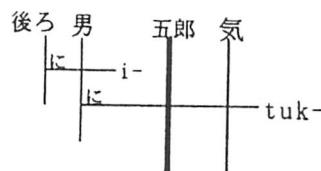


图19-12

여기에서는 「つく」라는 动속성 위에, 「五郎」라는 본주체와, 「気」라는 속성주체가 서 있다.

이런 문장은 실제로는 「気がついた」처럼 과거 또는 완료의 문장으로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시제나 相은 사상(捨象)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상, 형용속성, 단정속성, 동속성인 경우의 복주체구조형식(複主体構造形式)을 개관(概觀)하였다.

19.3 이 구조의 특징

[특징1] 명료한 관련……속성주체로서 가능한 것은, 본주체와 명료한 관련을 갖는 실체이다.

「본주체」(象에 해당하는 것)는,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서술하려고 하는 실체(명사)이므로, 화자(話者)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본주체」로 할 수 있다.

한편, 「속성주체」(鼻에 해당하는 것)로 할 수 있는 실체(명사)는 무엇이든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단자(말하는 사람)가 본주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체이고, 게다가 피전달자(듣는 사람)가 그것이 어떤 관련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본주체와 명료한 관련을 갖는 실체」라고 말하기로 하자, 명료한 관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와 부분, 소유·소속관계, 그 비유,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서의 관련이다.

예를 들면, 「窓」이라는 것은, 象과 관련을 갖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文7] *象が窓がかわいい。
(*象₀₁は窓がかわいい。)

라는 것은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유치원의 통학버스가 象(코끼리)를 본딴 경우라면, 올바른 문장이 된다.

[文8] この象が窓がかわいい。(이 코끼리가 창이 귀엽다.) (この象₀₁は窓がかわい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피전달자(듣는 사람)에게도, 속성주체 「窓」이 본주체 「象」과 관련을 갖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조图19-2를 보충하면, 예를 들어 图19-13, 14와 같은 것이 된다.

[文9] 象が(象がもつ)鼻が長い。(코끼리가 (코끼리가 가진) 코가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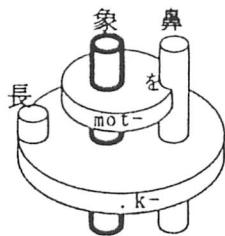


図19-13 象 θ_1 は鼻が長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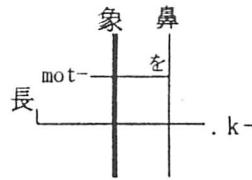


図19-14

이런 구조도를 하는 것에 의해, 속성주체 「鼻」는 본주체 「象」에 대하여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명료하게 된다. 판단자(말하는 사람)의 심층구조에서는 이와 같이, 속성주체는 구조상의 어딘가에서 본주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피전달자(듣는 사람)는, 전달된 표충문에서 구조상에서의 양자(両者)가 관련된 모습까지 재현할 수 있지 않으면, 그 표충문의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판단자(말하는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서 구축한 판단구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표충문을 묘사했다고 하자.

[文10] 空が指が太い。(하늘이 손가락이 굵다.) (空 θ_1 は指が太い。)

[文11] 富士山が島が純白だ。(후지산이 섬이 순백이다.) (富士山 θ_1 は島が純白だ。)

[文12] 川がドアが開く。(강이 문이 열린다.) (川 θ_1 はドアが開く。)

피전달자(듣는 사람)는 이를 문장의 속성주체(指, 島, ドア)가 본주체(空, 富士山, 川)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순간 탐색하지만, 결국 알지 못하고, 양자의 관련을 구조상에서 재현할 수 없게 된다. 판단자에게는 정상적인 문장이라도, 명료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전달자에게는 틀린 문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속성주체가 본주체와 명료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조재현에 지장이 없다.

[文13] 東京が人口が多い。(동경이 인구가 많다.) (東京 θ_1 は人口が多い。)

[文14] 彼が発音が明瞭だ。(그가 발음이 명료하다.) (彼 θ_1 は発音が明瞭だ。)

[文15] ぼくがオシッコが出る。(내가 오줌이 나온다.) (ぼく θ_1 はオシッコが出る。)

여기에서 또, 부정문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자. 부정문의 경우, 명료한 관계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文16] 象が翼がない。(코끼리가 날개가 없다.) (象 θ_1 は翼がない。)

「象」과 「翼」은 명료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니다. 부정문에서는, 본주체(象)를 무엇인가 다른 것(鳥)과 비교하거나 하는 것에 의해, 비교된 상대(鳥)와 그 속성주체(翼)가 갖는 관련을 끌어 들여, 그 끌어 들인 관련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문에서는 「명료한 관련」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다른 예도 들어보자.

[文17] 象が英語が必修ではない。(코끼리가 영어가 필수가 아니다.)

(象 θ_1 は英語が必修ではない。)

[文18] 村田さんが蹄が伸びない。(무라타씨가 발굽이 자라지 않는다.)

(村田さん θ_1 は蹄が伸びない。)

또, 「懐かしい」(20. 2), 「好きだ」(20. 3), 「分かる」(12. 3), 「話せる」(12. 4. 1), 「見える」(12. 4. 1), 「食べられる」(12. 5. 3)), 「できる」(20. 4) 등등, 구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참조.

[특징2] 「の」에 의한 연결묘사① 「본주체」→「속성주체」

…… 이 구조를 완결한 「문장」으로서 묘사할 경우, 「の」에 의한 연결묘사는, 「본주체」→「속성주체」의 방향만 유효

「の」는 어떤 구조상의 실체와 실체를 연결하여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구조도 상에서 는 화살표로 표현된다(4.2 3)). 「の」에서 구조상의 두 주체를 연결, 구조전체를 문장으로서 완결해 묘사하는 경우는, 연결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고, 「본주체」→「속성주체」의 방향이 아니면 안된다. 역방향은 잘못된 문장이 되던지, 의미(구조)를 바꿔버리게 된다.

[文19-a] 象の鼻が長い。(코끼리가 코가 길다.) (国 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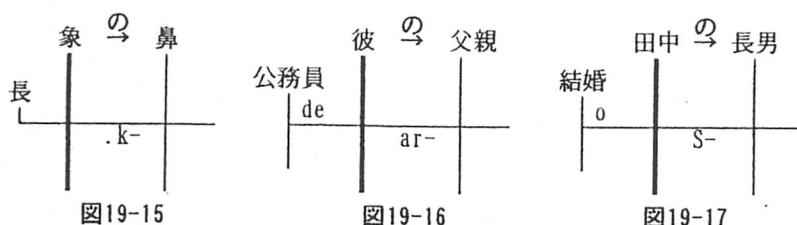
[文19-b] *鼻の象が長い。 (国 19-15)

[文20-a] 彼の父親が公務員だ。(그의 부친이 공무원이다.) (国 19-16)

[文20-b] ?父親の彼が公務員だ。(부친의 그가 공무원이다.) (国 19-16)
(의미 · 구조가 변화.)

[文21-a] 田中さんの長男が結婚する。(다나카씨의 장남이 결혼한다.) (国 19-17)

[文21-b] ?長男の田中さんが結婚する。(장남의 다나카씨가 결혼한다.) (国 19-17)
(의미 · 구조가 변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같은 속성에 위치한 주체인데, 왜 「본주체」→「속성주체」의 연결 방식은 가능하고, 반대 방향은 불가능한가.

이것은, 이 구조형식에서는, 본주체 「象」이 어디까지나 구조단위 「鼻が長い」 전체를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본주체 「象」에 있어서는 「鼻が長い」 전체가 속성이기 때문에, 「長い」라는 단일속성(주체를 가지지 않는 속성)만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묘사 「象が長い」는, 구조의 정확한 전달을 가져오지 않는다(「彼が 公務員だ」「田中さんが 結婚する」도 마찬가지). 다른 구조로부터 묘사된 표충형식이 되어버리고,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

한편, 속성주체 「鼻」는, 단일속성 「長い」만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본주체(象)가 단일속성(長い)만을 속성으로서 보존하는 것 같은 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면저의 예와, 새로운 예로 확인해보자. 이하의 a에서는 「속성주체」가 단일속성의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으므로 올바른 문장이 되고, b에서는 「본주체」가 단일속성만의 주체인 것 같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잘못된 문장이 되든가,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文22-a] 彼の子どもが小さい。(그의 아이가 작다.)

[文22-b] *子どもの彼が小さい。

[文23-a] 東京の人口が多い。(동경의 인구가 많다.)

[文23-b] *人口の東京が多い。

[文24-a] 茄子の色が紫だ。(가지 색이 보라색이다.)

[文24-b] *色の茄子が紫だ。

[文25-a] 彼の発音が明瞭だ。(그의 발음이 명료하다.)

[文25-b] *発音の彼が明瞭だ。

[文26-a] 彼の目が利く。(그의 분별력이 뛰어나다.)

- [文26-b] *目の彼が利く。
 [文27-a] ぼくのオシッコが出る。(내 오줌이 나온다.)
 [文27-b] *オシッコのぼくが出る。

[특징3] 「の」에 의한 연결묘사② 속성을 실체수식

……속성을 실체 수식시키는 경우는, 「の」에 의한 연결은 쌍방향이 가능하게 된다.

[특징2]에서는 「の」에 의한 연결은 「본주체」 → 「속성주체」의 방향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속성을 실체로 수식시키고 묘사하는 경우(4.2.2)에는, 역방향(「속성주체」 → 「본주체」)의 「の」에 의한 연결도 가능하게 된다.

- [28-a] 象の長い鼻 (코끼리의 긴 코) (「본주체」 → 「속성주체」)
 [28-b] 鼻の長い象 (코가 긴 코끼리) (「속성주체」 → 「본주체」)

[28-a]에서는, 「の」에 의해 「象」과 「鼻」의 관련이 묘사되고, 속성 「長い」가 그 속성의 주인 「鼻」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떤 관련도 없다. [28-b]에서는, 「鼻」와 「長い」가 따로따로이지만, 결과로서 일체의 구조단위로서 「象」를 수식하고 있다. (만약 「鼻の」가 없다면, 「長い象」가 되어, 구조의 정확한 전달은 불가능.) 구조단위 「鼻が長い」 전체가, 그 구조단위를 속성으로 하는 주체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鼻が長い象」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묘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하의 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 [29-a] 彼の公務員である父親 (그의 공무원인 부친) (「본주체」 → 「속성주체」)
 [29-b] 父親の公務員である彼 (부친이 공무원인 그) (「속성주체」 → 「본주체」)
 [30-a] 田中さんの結婚する長男(다나카씨의 결혼하는 장남) (「본주체」 → 「속성주체」)
 [30-b] 長男の結婚する田中さん(장남이 결혼하는 다나카씨) (「속성주체」 → 「본주체」)

실체수식묘사를 동반하는 「の」에 의한 연결에는, 올바른 구조형식이 전달·재현할 수 있으므로, 쌍방향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징4] 「の」에 의한 연결묘사③

…… 본주체는 그것과 특정할 수 있는 실체여야 한다.

[특징3]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쪽이 본주체이고, 어느 쪽이 속성주체인가 명료한 경우이다. 이 구별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두 가지 뜻(二義)이 생기고, 구조의 올바른 형식이 재현되기 어렵게 된다.

- [31-a] 妻の賢い弟(はその危機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
 (아내의 현명한 남동생(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32-a] 親友のフリーターである息子(は就職を考えない。)
 (친한 친구의 후리타인 자식(은 취직을 생각하지 않는다.))
 [33-a] 姉の結婚する娘(が泣いている。)
 (언니의 결혼하는 딸(이 울고 있다.))

이들 예에서는, 누가 현명하고(賢い), 누가 후리타(フリーター: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인지, 누가 결혼하는지(結婚する) 결정하기 어렵다. (밑줄친 부분의 구조는, 각각 図19-2, 図19-6, 図19-10 참조.)

본주체(象)는 그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 속성주체(鼻)는 본주체와의 관련에서 표현되

는 것이여야 하는데, 위의 예에서는, 본주체까지도 어떤 관계에서의 표현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는 본주체 쪽을 특정화하면 된다.

[31-b] 敏子の賢い弟(はその危機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た。)

[32-b] 親友のフリーターである大輔(は就職を考えない。)

(친한 친구의 후리타인 다이스케(는 취직을 생각하지 않는다。))

[33-b] 彼女の結婚する娘(が泣いている。)

(그녀의 결혼하는 딸(이 울고 있다。))

이렇게, 어느 쪽이 본주체이고, 어느 쪽이 속성주체인지가 명료하게 되면, 구조의 재현(이해)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된다.

또, 실체수식형식 다음에, 「본주체」 → 「속성주체」의 방향으로 주체들을 직접 연결하는 묘사법에서는, 두가지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도 언급해 두자.

[31-c] 賢い敏子の弟

[32-c] フリーターである大輔の親友

[33-c] 結婚する彼女の娘

이것은, 본주체와 속성주체가 속성에 대해 의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특징6] 참조)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묘사법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징5] 속성주체를 주제화하지 않는 경우

…… 구조단위는 정리하여 묘사하는 것이 좋다.

[특징2]에서, 본주체(象)가 그 단일속성(長い)만을 속성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 같은 묘사는, 구조의 정확한 전달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는 것은, 속성주체(鼻)를 주제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주체와 속성주체의 묘사순으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文34] *鼻が象が長い。

[文35] *父親が彼が公務員だ。

[文36] *長男が田中さんが結婚する。

라는 식으로 묘사했다고 하면, 본주체(象)가 그 단일속성(長い)만을 속성으로서 보존하는 것 같은 묘사(象が長い)가 되어버리고, 구조의 정확한 전달·재현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에서, 속성주체(鼻)를 주제화하지 않는 경우는, 구조단위는 따로따로 묘사하지 말고, 함께 묶어서 묘사하는 편이 좋다라는 것이 된다.

[文37] 象が「鼻が長い」。 (象₀₁は「鼻が長い」。)

[文38] 彼が「父親が公務員だ」。 (彼₀₁は「父親が公務員だ」。)

[文39] 田中さんが「長男が結婚する」。 (田中さん₀₁は「長男が結婚する」。)

[특징6] 속성주체를 주제화하는 경우

…… 듣는 사람의 구조재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에 주의 속성주체(鼻)를 주제화하는 경우는, 구조단위(鼻が長い)를 따로따로 묘사할 수 밖에 없다. 속성주체는 주제화하면 문장의 앞머리로 나오기 때문이다.

[文40] 鼻₀₁は象が長い。

[文41] ?父親₀₁は彼が公務員だ。

[文42] ?長男₀₁は田中さんが結婚する。

이 때, [文40]에서는 의미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象」과 「鼻」에서는 속성 「長い」에 대한 양자의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편, 「文41」에서는 누가 공무원인지,

「文42」에서는 누가 결혼하는지, 혼란이 생긴다. 그렇다기 보다는 틀린 문장에 가깝다. 본주체(彼, 田中さん)와, 속성주체(父親, 長男)가 속성(公務員だ, 結婚する)에 대해 의미상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속성주체(父親, 長男)를 주제화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혼란을 부르기 쉽다(올바른 구조재현이 보증되지 않는다).

본주체와 속성주체가 속성에 대해 의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속성주체의 주제화묘사는 피해야만 한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속성주체를 주제화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먼저의 예에도 적용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 두자. 이들 예에서는 [文41][文42]와 같은 혼란은 생기지 않는다.

- [文43] 子ども θ_1 は彼が小さい。 (\leftarrow 彼 θ_1 は子どもが小さい。)
- [文44] 人口 θ_1 は東京が多い。 (\leftarrow 東京 θ_1 は人口が多い。)
- [文45] 色 θ_1 は茄子が紫だ。 (\leftarrow 茄子 θ_1 は色が紫だ。)
- [文46] 発音 θ_1 は彼が明瞭だ。 (\leftarrow 彼 θ_1 は発音が明瞭だ。)
- [文47] 目 θ_1 は彼が利く。 (\leftarrow 彼 θ_1 は目が利く。)
- [文48] オシッコ θ_1 はぼくが出る。 (\leftarrow ぼく θ_1 はオシッコが出る。)

[특징7] 본주체가 복수 있는 경우

…… 「장소의 주체」 「시간의 주체」 / 「본주체」 「부차주체(副次主体)」

① 「장소의 주체」 「시간의 주체」

- [文49] 彼が夏が調子が良い。 (\leftarrow 彼 θ_1 は夏が調子が良い。)

이 문장에서는, 「调子が良い」(图19-18)라는 구조단위가 있고, 그 전체를 주체 「彼」가 속성으로 보존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夏」라는 주체가 나타나고 있다(图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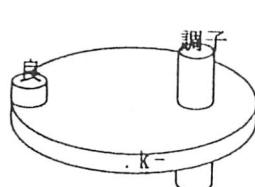


图19-18 调子が良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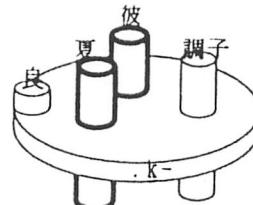


图19-19 彼 θ_1 は夏が調子が良い

여기에서 와서,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구조단위 「调子が良い」의 「실현되는 곳」이 주체 「彼」이고, 「실현되는 때」가 주체 「夏」이다, 라고. 「실현되는 곳」으로서 구조 단위를 속성에 갖는 주체가 「彼」이고, 「실현되는 때」로서 구조단위를 속성에 갖는 주체가 「夏」이다, 라고. 여기에서, 주체 「彼」는 「장소의 주체」, 주체 「夏」는 「시간의 주체」라고 부를 수 있다.

② 「본주체」 「부차주체(副次主体)」

그러면, 그 양자는 속성인 구조단위에 대해 같은 자격을 갖는 것일까라는 것이 의문이 된다.

[文49]에서,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それ」에 해당하는 것은 「夏」가 아니라 「彼」이다. 따라서 「彼」가 본래인 주체, 본주체이다. 여기에 「调子」가 속성주체가 되고 있다. …… 「彼が調子が良い」.

「夏」는 「彼가 · 调子가良い」라는 구조가 성립되는 한의 주체, 즉, 주체로서는 「彼」와

달리, 부차적인 주체이다. 이것은,

[文50] 彼が調子が良い。 (彼のは調子が良い。)
는, 이것만으로 완결된 의미를 구성하지만,

[文51] 夏が調子が良い。 (夏のは調子が良い。)
에서는, 누구의 調子인지, 어떤 調子인지 물어보고 싶어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장소의 주체」가 주요 주체이고, 「시간의 주체」가 부차적인 주체이다,
라는 것이 된다. 「주체」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주요한 주체 「본주체」와, 부차적
인 주체 「부차주체」이다. 여기에서는 「장소의 주체」가 「본주체」, 「시간의 주체」가
「부차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夏」를 「足」으로 바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

[文52] 彼が足が調子が良い。 (彼のは足が調子が良い。) (그림 생략)
여기에서는 「彼」도 「足」도, 「調子가良い」라는 속성이 성립하는 「장소」이다.
「彼」도 「足」도, 「調子가良い」라는 속성을 갖는 「장소의 주체」이다. 여기는 「장소의
주체」가 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주체에 우선순위가 있다. 똑같이 「장소의 주체」라고 해도, 「彼」가 본
주체이고, 「足」는 부차주체이다. 「彼」는 「장소의 본주체」, 「足」는 「장소의 부차주
체」라는 것이다.

③ 동격주체…… 「と」 · 「に」 · 「や」를 사용하여 묘사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형태의 복수 주체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

[文53] 智ちゃん⁵⁰⁾や雄くん⁵¹⁾が夏が調子が良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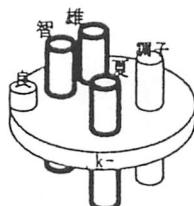


図19-20 智ちゃんのや雄くんのは夏が調子が良い



図19-21

[文49]와의 차이는, 「장소의 주체」가 두 개 있는 것이고, [文52]와의 차이는 두 개의
「장소의 주체」가 속성에 대해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도가 같다는 것
이다. 「智ちゃん」과 「雄くん」은 어느 쪽도 「장소의 본주체」이고, 완전히 같은 격에 있다.

같은 격에 있는 실체를 열거해서 묘사하고 있으므로 「や」가 사용되고 있다. 이 「や」
는, 이 구조전달문법에서는, 「と」나 「に」와 마찬가지로 「동격실체열거묘사사(同格実体
列挙描写詞)」라고 불리는 것이다(5.2 표5-6).

그러면 또, 다음과 같은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文54] 智ちゃんや雄くんが夏と冬が調子が良い。 (그림 생략)
부차주어 「夏」와 같은 격에 부차주체 「冬」가 첨가된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열거하는데
「や」가 아니라 「と」가 사용되고 있다. 「と」는 모든 것을 열거하지만, 「や」는 주요한
것만을 열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여기서는 좋다고 해 두자. 이 문장의 구조에 대
해서는,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0) 「ちゃん・くん」은 「(대우)묘사사(描写詞)」이고, 구조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5.2 표5-6). 그러나, 「～ちゃん」 전체를 고유명사로서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8] 속성주체가 복수 있는 경우

[文55] 彼が読書やテニスが趣味である。 (彼の1は読書やテニス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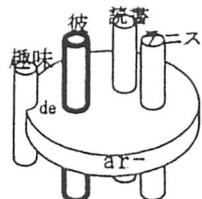


図19-22 彼の1は読書やテニスが趣味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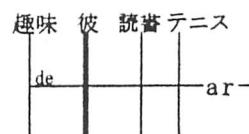


図19-23

여기에서는, 속성주체는 「讀書」와 「テニス」이고, 이것이 동격실체열거묘사사 「や」에 의해 열거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속성주체가 복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성주체가 복수 인정된다(鼻, 牙).

[文56] 象が鼻と牙が長い。 (象の1は鼻と牙が長い。)

제20장

複主体가 동일속성에 있는 구조

20.1 複主体가 동일속성에 있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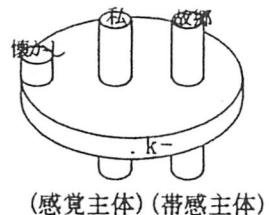
여기에서 다를 심층구조는, 앞의 19장에서 다룬 구조와 매우 닮아 있는데, 다음의 점에서 다르다. 즉, 「象が…(코끼리가...)」의 구조에서는 「본주체(本主体)」는 구조단위를 속성으로 하고, 「속성주체(属性主体)」는 단일속성을 속성으로 한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여기에서 다룬 구조에서는 각주체가 단일속성을 그대로 속성으로 한다.

또, 「象が…」에서 필요로 했던 주체간의 관련성은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다.

20.2 형용속성(형용사)의 경우

「文57」 私が故郷が懐かしい。 (私 θ_1 は故郷が懐かしい。)
내가 고향이 그립다. (나 θ_1 는 고향이 그립다.)

이 구조의 주체는 「私(나)」와 「故郷(고향)」이다. (图20-1) 「懐かしい(그립다)」라고 하는, 의미적으로는 감각적인 속성에 대해, 「私(나)」는 「それを感じる(그것을 느끼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 속성을 직접 유지하는 주체가 되어 있고, 「故郷(고향)」은 「私(나)」의 감각 속에서 「그리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 속성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주체가 되어 있다. 양자 모두 주체이다. 그래서, 「私(나)」의 쪽을 「감각주체(感却主体)」라고 부르고, 「故郷(고향)」쪽을 「대감주체(帶感主体)」라고 부르기로 한다.



(感觉主体) (带感主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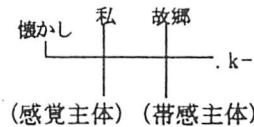


图20-2

图20-1 私 θ_1 は故郷が懐かしい

이 구조에는 다음의 특성이 있다.

- ① 「감각주체」로서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일인칭에 한정된다. (소설 같은 다른 文 등에서는 일인칭 이외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은, 이 구조가 화자 자신의 감각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② 「감각주체」와 「대감주체」의 양자 모두 단일속성의 위에 서 있다. 이것은 어느쪽도 단일속성(懷かしい)의 주체로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文58」 私が懐かしい (내가 그립다) (私 θ_1 は懐かしい) (나 θ_1 는 그립다)
「文59」 故郷が懐かしい (고향이 그립다) (故郷 θ_1 は懐かしい) (고향 θ_1 은 그립다)
- ③ 단, 「감각주체」가 본주체이고, 「대감주체」가 부차주체이다. 이것은, 통상, 다음 중에서 보다 안정적인 文은, 감각주체를 θ_1 격으로 한 「文60」 쪽인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文60」 私 \emptyset_1 は故郷が懐かしい。

나 \emptyset_1 는 고향이 그립다.

「文61」 故郷 \emptyset_1 は私が懐かしい。

고향 \emptyset_1 은 내가 그립다.

감각주체와 대감주체를 가지는 형용속성을 특히 「감각형용속성(感覚形容属性)」이라고 부른다.

「文62」 私がお金がほしい。 (私 \emptyset_1 はお金がほし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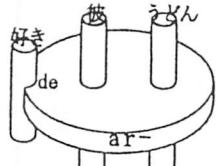
내가 돈을 가지고 싶다. (나 \emptyset_1 는 돈을 가지고 싶다)

등도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20.3 단정속성(단정기)의 경우

「文63」 彼がうどんが好きだ。 (彼 \emptyset_1 はうどんが好きだ。)

그가 우동을 좋아한다. (그 \emptyset_1 는 우동을 좋아한다。)



(感觉主体) (带感主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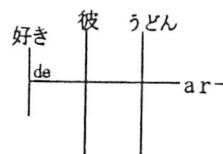


图20-3 彼 \emptyset_1 はうどんが好きだ 图20-4

「好きだ(좋아하다)」는 감각단정속성을 구성한다. 감각주체가 「彼(그)」, 대감주체가 「うどん(우동)」, 속성이 「(好きで)ある(좋아하다)」이고 감각주체가 본주체, 대감주체가 부차주체이다. 이 구조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① 「好きだ」를 실체수식묘사할 때에는 「好きな」라고 하는 식으로 격이 바뀐다.

「64」 うどんが好きな彼

우동을 좋아하는 그

「好きだ(좋아하다)」는, 요소표기 한다면, suki-d=a- \emptyset 가 된다. 이것은 종지형(기본묘사형)이다. 이것을 연체형(실체수식묘사형)으로 하는데는, suki를 de격에서 ni격으로 「격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suki-n=a- \emptyset ⁵¹⁾ (图20-5, 6)

단, 「うどんが好きである彼 (우동을 좋아하는 그)」라고 하는 묘사도 물론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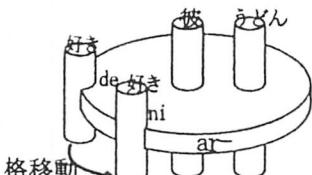


图20-5 うどんが好きな彼



图20-6 うどんが好きである彼

② 대감주체가 유정물인 경우, 한 편을 주제화하면 이의(二儀)가 생긴다.

「文65」 一郎くん \emptyset_1 は縁ちゃんが好きだ。 イチロ \emptyset_1 는 미도리를 좋아한다.

51) 국어문법의 「形容動詞」의 활용에 대해서는 19.1 2)注참조. 11.3 「な基」도 참조.

라고 하는 文에서는, 어느쪽이 어느쪽을 좋아하고 있는가, 결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각각 주체와 대감주체의 어느쪽도 속성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문두의 주제화된 유정물이 감각주체인 것이 일반적이다.

③ 대감주체가 유정물인 경우, 실체수식묘사를 하면 이의성(二儀性)이 현저해진다.

「66」 一郎くんが好きな縁ちゃん 이치로가 좋아하는 미도리

「67」 一郎くんの好きな縁ちゃん 이치로의 좋아하는 미도리

여기에서는 「文65」 이상으로 이의성이 강하다.

「嫌いだ(싫어하다)」, 「必要だ(필요하다)」 등도 같은 식으로 다를 수 있다.

20.4 동속성(동사)의 경우

「文68」 彼がお金が要る。 (彼 θ_1 はお金が要る。)

그가 돈이 필요하다. (그 θ_1 는 돈이 필요하다.)

「文69」 彼が英語が出来る。 (彼 θ_1 は英語が出来る)

그가 영어를 할 수 있다. (그 θ_1 는 영어를 할 수 있다)

「要る(필요하다)」, 「出来る(가능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라고 생각되는 명사를 왜 주격형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岩波古語辞典』에 의하면, 「要る」에는 본래 「入り」로, 「必要物の中に入る(필요물 안에 들다)」라고 하는 의미였다. 그렇다고 하면, 「文68」에서는 「必要物の中に入る(필요물 안에 들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お金(돈)」이 주격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격은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하기 쉽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어원주격(語源主格)」이라고 부른다면 어떨까. 현대어에서는 각각의 이곳남이 생기지만, 「を格」으로 격이동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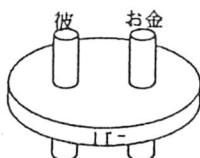


図20-7 彼 θ_1 はお金が要る



図20-8 彼 θ_1 は英語が出来る

「文68」의 또 하나의 주체 「彼(그)」는, 「お金が必要物の中に入る(돈이 필요물 안에 들다)」라고 하는 속성을 「場(장소)」로서 유지하는 「場의 주체」이다. 그래서 주격형식 「～が」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場」은 「に格」로 나타낼 수 있다.

「文70」 彼にお金が要る。 (彼 θ_1 にはお金が要る。) (구조도 생략)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

「彼が」와 「彼に」의 양쪽의 구조형식이 가능하다.

「文69」에서는, 「出来る(가능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동사전에 의하면, 이것은 본래 「①출현하다, ②물건이 생성되다, 완성되다」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英語が出来る(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 「英語」가 「출현하다, 완성되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 「英語」가 주격이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어원주격」이다.

「出来る(가능하다)」의 경우의 「彼(그)」가 「に格」를 취할 가능성성이 있는 「場의 주체」인 것은, 「要る(필요하다)」의 경우의 「彼」와 같다.

제21장

태 · 上置構造를 동반하는 복주체

21.1 태(態)에 의한 複主体

「文71」 彼が英語が分かる。	(彼 <small>の</small> は英語が分かる。)
그가 영어를 안다.	(그는 영어를 안다)
「文72」 彼が英語が読める。	(彼 <small>の</small> は英語が読める。)
그가 영어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영어를 읽을 수 있다)
「文73」 (私が)富士山が見える。	(私 <small>の</small> は富士山が見える。)
(내가) 후지산이 보인다.	(나는 후지산이 보인다.)

동사가 「分かる(알다)」, 「読める(읽을 수 있다)」(가능동사 일반), 「見える(보이다)」 등 인 경우, 왜 복주어가 생기는가가 의문시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12.3 및 12.4에서 다루었지만, 간단하게 재설명하기로 한다.

「分かる(알다)」의 경우는, wak-ar-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분석할 수 있고, wak-의 주체(彼)와 -ar-의 주체(英語)의 두 개가 표충에서의 주어가 되어있으며, 「読める(읽을 수 있다)」(가능동사 일반)의 경우는, yom-e-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분석할 수 있고, yom-의 주체(彼)와 -e-의 주체(英語)의 두 개가 표충에서 주어로 되어있다. 「見える(보이다)」도 같다.

즉, 어느쪽도 태속성(수동태 -ar-와 허용태 -e-)가 초래하는 복주어의 현상인 것이다. (「~には~が分かる、~には~が読める、~には~が見える」의 경우에 대해서도 12.3 및 12.4 참조.)

21.2 상치구조(上置構造)를 동반하는 복주체

「文74」 私が水が飲みたい。	(私 <small>の</small> は水が飲みたい。)	nom-i=ta. k-
내가 물이 마시고 싶다.	(나 <small>の</small> 는 물이 마시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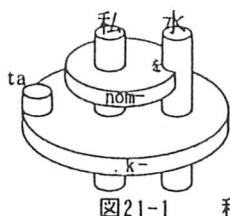


图21-1 私のは水が飲み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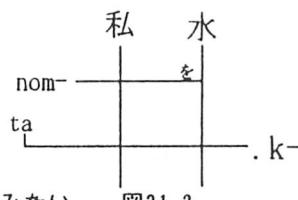


图21-2

「たい(ta. k-)」는, 이 문법이 「하수실체(下受け実体)」라고 부르는 형용실체의 하나인 「ta⁵²⁾」를 사용한 감각형용속성이다. 단독으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속성을 중심으로 한 다른 구조 (私の水を飲む(나 물을 마시다)를 위에 세운다. 이 위에 세운 구조를 「상치구조(上置き構造)」라고 부르기로 한다. 「たい」의 구조는, 상치구조가 현실

52) 「(私のは)この機械が使いやすい／にくい。((나는) 이 기계가 쓰기 쉽다/어렵다.)」의 「やす」, 「にく」도 같다

세계에 실현하는 것을 화자가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각형용속성이기 때문에, 복주체가 가능하다. 감각주체는 원칙적으로 일인칭의 실체로⁵³⁾ 대감주체는 상치구조의 본주체(私(나)) 이외의 실체이다. 대감주체는 「文74」의 「水(물)과」과 같이 상치구조 속의 「を 격실체」인 것도 있어, 「文75」의 「飛行機(비행기)」와 같이 「に 격실체」인 것도, 「文76」의 「オシッコ(오줌)」과 같이 「主格實体(속성실체)」인 것도 있다.

「文75」 ぼくのは飛行機が乗りたい (←飛行機に乗る)

나는 비행기를 타고싶다. (비행기를 탄다)

「文76」 ぼくのはオシッコが出たい。 (←オシッコが出る)

나는 오줌누고 싶다. (오줌누다)

묘사할 때, 상치구조의 격관계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욕구 그 자체(하수구조(下受構造))보다는 사태의 논리관계(상치구조)를 중시하는 경우나, 상치구조가 복잡한 경우이다. 그 경우에는 「文77」, 「文78」과 같이 대감주체는 그 격(を格、に格 등) 그대로 표충화된다.

「文77」 私は(どんぶりで一気に)水を飲みたい。

나는 (사발로 한꺼번에) 물을 마시고 싶다.

「文78」 ぼくのは(機体に動物の絵の描いてある)飛行機に乗りたい。

나는 (기체에 동물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행기를 타고 싶다.

『日本文法大辞典』 「たい」의 항에 의하자면, 복주어에서의 묘사와, 상치구조의 격관계를 살리는 묘사는, 무로마치(室町) 시대부터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 구조의 감각주체를 삼인칭의 주체로 하는 데에는, 하수실체(ta)와 동사(動辭) (.gar-)를 사용하여 융합동사⁵⁴⁾ (ta.gar-)를 만들어, 이것을 속성이라고 하면 된다.

「文79」 彼が水を飲みたがる。 (彼のは水を飲みたがる。)

그가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그の는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이 속성 ta.gar-에서는, 「水(물)」이 .gar-의 주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文80」 * 彼が水が飲みたがる。 (* 彼のは水が飲みたがる。)

와 같은 형태에서의 복주어묘사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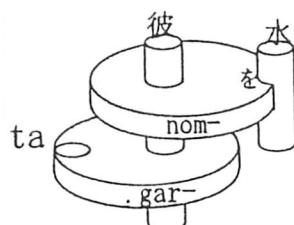


图21-3 彼の水を飲みた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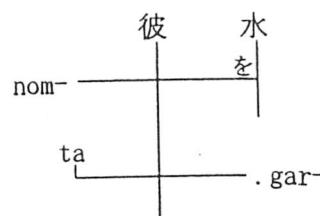


图21-4

◎ 복주체의 구조는, 한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⁵⁵⁾, 일본어 특유의 구조도 있다. 더욱 계속해서 연구하고 싶다.

53) 「読みたければ(읽고 싶다면)」과 같은 조건제시등의 묘사에서는, 일인칭이외에서도 가능.

54) 「융합동사」에 대해서는 7.2참조

55) 한국어에는 형용사술이문에서 「象は鼻が長い(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구조가 있고, 또 다음과 같이 복주체를 취하는 twe-da(なる)라고 하는 동사도 있다.

mur-i orum-i twe-da

水一が 氷一が なる。 (「水が氷になる(물이 얼음이 되다)」는 의미)